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 재
				권경미		
개최일시	2023년 1월 25일 오전 10시	회의장소	행정관 605호			
		담당부서	기획팀			
참석의원	신태균, 김경희, 김용환, 박화진, 이형진, 서보밀, 윤휘수, 심석영, 박수연, 배규리	기록자(간사)	권경미	기록일	2023. 1. 25.	
		불참의원	나지수, 오지영			
		기타참석자	대학원교학팀 조선미 팀장, 성악과 박현주 교수, 경영전문대학원교학팀 박선희 차장, 기획처 오명전 처장, 예산팀 박경옥 팀장, 기획팀 권경미 팀장(간사)			
안건	1.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 2. 학칙 개정(안) 3. 대학원 학칙 개정(안) 4.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5. 2022학년도 추가경정 자금 예산(안) 및 2023학년도 자금 예산(안)					
배포자료 및 기타	1. 대학평의원회 부의안건 1부 2. 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3. 2023 본예산 편성(안)					
■ 심의(자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명전 기획처장(전 의장)은 총 의원 10명이 참여하여 2023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가 성원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 안건에 앞서 오명전 기획처장이 대학평의원회 의원들을 소개하다. 						
[안건1]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은 기존 평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평의원회 교원 의원이 해촉되고 교원의원 2명과 학생의원 2명이 새로 위촉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의장 선출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평의원회 의원 중 의장 추천을 요청하다. ○ 김경희 부의장은 이형진 의원을 의장으로 추천하고, 의원들의 제청을 통해 이형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다. ○ 의장으로 선출된 이형진 의원이 이후 평의원회 진행하다. 						
▶ 선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으로 이형진 의원 선출하다. 						
[안건2] 학칙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은 학칙 개정(안)을 안건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팀 권경미 팀장이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다. ○ 심석영 의원은 산업약학과과 실제로 운영되었는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산업약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없었다고 답변하다.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원회의장	결재
	권경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보밀 의원은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에 대한 개정안에서 약학대학 편입생의 경우 편입 후 우리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편입생의 경우 전적 대학의 학점도 포함하여 인정하다보니 이 부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다. ○ 권경미 팀장은 약학대학 편입생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다른 학과의 경우 편입생의 전적대학 학점인정 처리 절차를 거치는데, 약학대학의 경우 편입시에 전적교의 수료 여부만 확인하고, 우리대학 편입 이후의 학점만을 인정한다고 답변하다. ○ 김용환 의원은 약학대학 편입생은 일반 편입이 아닌 PEET만 있는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약학대학 편입생은 다른 학과와 같은 일반 편입은 없고, PEET를 통과한 편입만 있다고 답변하다. ○ 박수연 의원은 수료 증명서 교부의 기준이 2학기 기준으로 40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40학점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우리대학 학적상으로는 40학점 미만을 수료해도 진급이 되지만, 수료 증명서가 대부분 외부 제출용이기 때문에 박수연 의원이 말한 케이스의 경우 1학년을 수료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답변하다. 수료 증명서는 학기와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부연하다. ○ 박수연 의원은 약학대학 신입생은 2022년 3월에 입학했는데, 개정이 이후에 되면서 혼란은 없었는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약학대학 편입생과 약학대학 이외의 학과는 수료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취득학점에 변동이 없고, 수료 증명서의 경우 대부분 타대학 편입에 사용하며, 편입이 3학년에 이루어져서 2학년 수료 증명서 발급이 대부분으로 약학대학 신입생의 수료 증명서에 대한 문의는 없었다고 답변하다. ○ 박화진 의원은 산업약학과 폐지로 <별표 1> 계약학과에 대한 표가 삭제되었는데, 다른 계약학과가 신설되면 관련 규정을 다 신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표 1>만 다시 개정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학칙에 계약학과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있고, <별표 1>의 표만 개정하면 된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계약학과가 몇 개인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계약학과는 산업약학과만 있었고, 더 많은 계약학과 유치를 위한 시도를 해왔으나 산업체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산업체에서 재직자를 우리대학으로 보내고, 산업체에서 등록금도 전액 지원해줘야 해서 쉽지 않다고 답변하다. ○ 박수연 의원은 학칙 개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부칙으로 별도 적용일을 두지 않는한, 총장 결재일 다음날이 시행일이 된다고 답변하다. ○ 박수연 의원은 약학대학 학생의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취득학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약학대학과 각 단과대학별 총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기준으로 학년도별 적정 이수학점을 배분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권경미



결
재

- 박화진 의원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8학기에 125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10학기에 125학점을 이수할 경우 수료 증명서는 어떻게 학기 표기가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박화진 의원이 질문한 사례의 경우 4학년, 8학기 수료로 표기된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부칙에 <별표 1>을 2022년 9월 1일로 소급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산업약학과의 계약종료가 2022년 8월 31일 이었고, 교육부에도 2022년 9월 1일로 보고하였기에 소급 적용하게 되었다고 답변하다.
- 박수연 의원은 제54조 표에서 이수학기라는 단어를 이수완료학기로 변경하는 취지에 대해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기존에 이수학기라는 단어를 일부 학생들이 해당 학기 중으로 이해하기도 하여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완료라는 단어를 추가했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완료하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다.

[안건3] 대학원 학칙 개정(안)

-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대학원 교학팀 조선미 팀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서보밀 의원은 성악학과 박사과정의 수여학위가 연주학 박사가 맞는지 질의하다.
- 박현주 교수는 일반적으로 성악과 기악에서 연주학 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박화진 의원은 성악학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동의를 모두 받은 것인지 질의하다.
- 박현주 교수는 현재 재학생 전원의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답변하다.
- 박화진 의원은 박사과정 학과 신설시 필요한 교수 수에 대해 질의하다.
- 조선미 팀장은 교육부에서 박사과정 학과 신설시 요구하는 참여교수의 수는 7명이고, 이번 성악학과 신설시 성악과 교수 3명, 피아노과 2명, 작곡과 교수 2명을 참여교수로 하였다라고 답변하다. 박현주 교수는 보컬 관련은 성악과 교수가 지도하며, 나머지 교과목은 협업하여 다른 학과 교수님들이 지도하실 수 있다고 부연하다.
- 박화진 의원은 현재 박사과정 성악학과에 소속된 내국인과 외국인은 몇 명인지 질의하다.
- 박현주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재적생 기준 내국인 학생 1명, 중국인 학생 22명이며,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 합하면 총 30명(내국인 학생 2명, 외국인 학생 28명)이라고 답변하다.
- 박화진 의원은 외국인 학생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하여 국내 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다.
- 박현주 교수는 학과의 운영에 중국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부분을 간과할 수 없으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하여 박사 학위의 질적인 측면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다.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권경미



결
재

- 심석영 의원은 기존에 음악학과 내에 기악전공과 성악전공이 있었고, 기악전공 안에 피아노/관악/현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성악학과가 분리되면서, 기악전공이 기악학과로 하지 않고, 음악학과로 남은 배경에 대해 질의하다.
- 조선미 팀장은 음악학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학과 내 세부전공인 기악전공은 현재 재학생이 없어 폐지되고 피아노/관악/현악/음악치료학 전공은 아직 분리 신설하거나 학과를 변경하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
- 박수연 의원은 부칙 제2조(적용례)제2항에 명시된 소속 변경에 대해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지할 예정인지 질의하다.
- 조선미 팀장은 2024학년도 3월 1일자 소속 변경이기 때문에 2024년 2월 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박현주 교수는 기존 재학생들은 성악학과 신설에는 동의하나, 본인들은 음악학과 성악전공으로 졸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하다.
- 의장은 석사과정에는 피아노과로 되어 있는데, 성악학과에는 ‘학’ 이 붙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박현주 교수는 학부와의 차별성을 위해 학부는 성악과, 대학원은 성악학과로 명명했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유학생 확보를 위해 학과를 독립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박현주 교수는 음악학과 안에 4개의 전공이 있고, 다른 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는 성악 전공에 외국인 학생이 입학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원활한 학과 운영을 위해서도 학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다.
- 박화진 의원은 정원외로 뽑히는 외국인 학생의 실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하다.
- 박현주 교수는 정원의 외국인도 1,2차 면접 입시를 엄격하게 거쳐서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만을 선발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외국인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TOPIK 수준은 3급인데, 이는 수업을 듣고, 논문을 쓰는 것은 어려운 수준임을 말하다. 또한, 박사과정 외국인 학생은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교수 재직하면서 박사 학위가 필요해서 입학하는 케이스가 있다보니, 학문의 질적 타협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다.
- 박현주 교수는 중국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바로 우리대학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도 하지만, 이태리나 독일 등 서유럽에서 석사를 따고 온 경우도 많이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한국어로 논문을 쓰는 것까지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답변하다.
- 부의장은 타대학에서도 외국인 학생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MBA 과정 등에서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학과 교수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서 열심히 잘 운영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하다.
- 배규리 의원은 공대 첨단학과 신설시에는 학생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았고, 이번 성악학과 박사과정 신설의 경우 재학생들의 전원 동의를 얻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공과대학 첨단학과 신설에 대해서도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학과 교수님들을 통해 개편안을 설명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대학평의위원회 등을 거쳤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음을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권경미



결
재

사과하였고, 후에 간담회를 진행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답변하다.

- 서보밀 의원은 성악학과가 분리됨에 따라 운영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하다.
- 조선미 팀장은 학과가 신설되면 교육과정도 새롭게 만들어지겠지만, 성악학과의 경우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비용이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부장님이 겸직하고 있어서, 앞으로 신설되는 성악학과 박사과정의 주임교수도 겸직하거나 별도 발령이 있을 수는 있다고 부연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완료하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안건4]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

- 의장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개정(안)을 안건 상정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박선희 차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박화진 의원은 [별지서식 2] 영문 학위기의 개정사항이 202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자(2022년 8월 졸업)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행했다는 의미인지 질의하다.
- 박선희 차장은 학위논문, 학위과제가 선택으로 개정되는 당시 영문 학위기의 형식도 변경했어야 하는데,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의 결재를 통해 개정(안)의 학위기를 발급했다고 답변하다.
- 서보밀 의원은 후에는 이러한 소급 적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요청하다. 또한, 주야간 정원을 통합하는 것이 교육부 인가조건에 위배되지 않은지 질의하다.
- 박선희 차장은 5년 주기마다 진행되는 교육부 경영전문대학원 평가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다.
- 서보밀 의원은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회의록에 담을 것을 요청하다.
- 신태균 의원은 이와 같은 규정 개정 시행의 소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의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다.
- 권경미 팀장은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에 온라인으로 회의 개최가 가능하므로, 시급한 학칙 개정 필요 시 온라인으로도 평의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하여 이번과 같은 규정 소급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완료하다.

▶ 심의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서보밀 의원이 요청한 사항(제2조 제2항 관련 주야간 정원 통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회의 후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제2조 제2항은 개정안에서 제외하다.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권영미



결재

※ 경영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주야간 구분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

- 현재 경영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보다 학생선발인원이 미달이어서 주간/야간 정원 초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초기 경영전문대학원 신설 시 인가받은 정원은 주간/야간 각 20명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간/야간 통합 정원 운영에 대한 별도 승인과정 없이 운영을 확인함. 이에 따라 경영전문대학원 학칙 제2조 제2항의 개정은 취소하는 것으로 함.

안건5] 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2023 본예산 편성(안) (지문)

- 의장은 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안전상정 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처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2023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하다.
- 서보밀 의원은 기금 적립 인출 내역에서 전기 이월 추정액을 기준으로 1% 조금 넘는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가상승률과 올해 건축을 하지 않아서 절감된 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이 줄어드는데 따른 문제는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과 수강료만으로는 고정비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아 그 부분에서만 5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기금 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기금 적립금액의 증가는 어렵고, 고갈되는 속도를 늦추는게 목표라고 부연하다.
- 김용환 의원은 여러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몇 십억원씩 초과 지출이 발생하였는데 2022학년도에는 운영수지 적자가 개선 된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 발언하다.
- 기획처장은 우리대학이 외부 차입금이 없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수입효과가 있었고, 총장님의 대외적 노력을 통해 발전기금도 목표 이상을 모금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부연하다.
- 배규리 학생 의원은 개보수 공사비로 15억이 증가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시설종합관리센터에서 개보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대학 여러 건물의 노후화로 요청사항이 발생할 때에 대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건물별로 얼마씩 사용했다고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2023 본예산 편성(안)을 안전상정 하고, 설명을 요청하다. 기획처장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3 본예산 편성(안)을 설명하다.
- 박화진 의원은 최근 5년 운영수지 현황을 보면 계속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2023학년도 본 예산의 경우 2020, 2021, 2022학년도에 비해 적자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어렵겠지만, 후에 추경을 하더라도 본 예산은 운영수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편성해보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피력하다.
- 오명전 기획처장은 자료로 드린 최근 5년 운영수지 현황은 감가상각비(136억)를 포함하여 반영 한 것이고, 현금만으로 수입과 지출을 산출하는 자금 수지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게 된다고 답변하다. 또한, 수입과 지출이 0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보기도 했는데, 그 경우 학과와 행정부서에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며,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마이너스를 감내하고라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등록금 외 수강료 수익 증대, 연구 활성화를 통한 간접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장

권영미



결
재

로 하여, 허투루 쓰이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 심석영 의원은 운영수지 개선 방법으로 수강료 수입 증대와 더불어 산학협력단 전입금 수입도 방안 중 하나인데, 앞으로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질의하다.
- 오명전 기획처장은 산학협력단 간접비 수익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2년 간접비 수익은 약 70억 원 예상되므로 앞으로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다.
- 의장은 2020, 2021, 2022학년도 예산 절감효과가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질의하다.
- 오명전 기획처장은 코로나로 인한 절감효과이며,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연구는 투자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연구, 인프라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우리대학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운영비는 줄이고 있다고 부연하다.
- 박화진 의원은 스타벅스의 입점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임대 수익도 발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유희 공간 임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스타벅스 외에도 현재 학생회관 1층에 굿즈샵을 조성 중이며, 교내 공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업체들을 발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다.
- 배규리 의원은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 자체 노력 목표액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처장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내장학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것이 자체 노력 목표액이라고 답변하다.
- 배규리 의원은 교내 장학금 부분에서 2023학년도 예산액이 214.6억원으로 2022학년도 추경예산액 대비 3억원이 증가한 것이 맞지만 2022학년도 본예산이나 2021학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감액 되었다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 등록금 수입에 비례하여 교내 장학금도 지급된다고 설명하며,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휴학생이 적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다.
- 박수연 의원은 성적 우수 장학금의 경우 차순위 선발이 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의 불만이 있다고 하며, 차순위 선발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예산 편성은 기획처에서 진행하나 장학금의 지급과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학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학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학생지원센터로 공식의견을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 박수연 의원은 태풍으로 다목적관 지붕이 날아갔고, 그 이후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빗물이 새고, 체육교육과에서 수업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태풍 곤파스로 대강당의 지붕이 파손되어 멸실하였으며, 대체공간으로 다목적관을 신축하여 체육교육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의원의 다목적관 지붕 개보수와 관련한 상세 사항은 시설종합관리센터에 문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다.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사

평의위원회의장

권경미



결
재

※ 다목적관 지붕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

- 다목적관의 지붕은 금속지붕으로 지붕층에 별도의 방수공사 없이 우수를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조성됨. 이러한 지붕에 누수가 발생하면 금속 마감재의 접합부의 탈락 등으로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다목적관의 경우 접합부의 탈락이나 파손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아 누수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다목적관의 누수가 발생되면 누수가 발생하는 지점에 우수유도판을 설치하여 체육관 내부로 떨어지는 우수를 천정에서 받아내는 방식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체육관 내부에서 천장을 바라보면 사각형 모양의 유도판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시설종합관리센터에서는 22년 3월에 누수확인되었던 천장 부위 유도판 설치를 진행하였고, 22년 4월에 추가 발생한 누수 부위에 유도판을 추가로 설치함. 또한 22년 여름 폭우때 발생한 누수부분은 22년 9월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누수에 의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음. 향후에도 다목적관 사용시 불편사항 발생시 포털-시설유지보수신청으로 내용 접수하면 보수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 박수연 의원은 이전에는 수업 진행을 위해 우리대학에서 효창운동장과 계약을 맺어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질의하다.
- 심석영 의원은 예산팀장 요청에 의해서 전임 관재팀장인 심석영의원이 효창운동장에 우리대학 광고(광고비 2-3천만원 수준)를 하는 경우 우선 예약권이 있고, 대여료는 사용 건별로 별도 지급되었다고 설명하다.
- 박경옥 팀장은 현재는 효창운동장에 A보드 광고를 하지 않아 우선 예약권은 없으나 수업권에 침해를 받는 상황은 아니며, 학군단과 체육교육과가 실험실습비로 장소 사용을 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다.
- 부의장은 동문회장으로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하다.
- 의장은 추가 의견 또는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2023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원안대로 자문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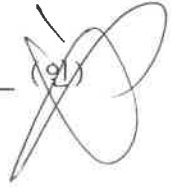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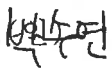

▶ 자문 결과

- 의장과 의원들은 2022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2023 본예산 편성(안)에 원안에 따른 자문을 완료하다.

○ 의장은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위원회를 마친다. 끝.

2022학년도 제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참석의원 서명

의 장 <u>이형진</u>  (인)	부의장 <u>김경희</u>  (인)
의 원 <u>신태균</u>  (인)	의 원 <u>김용환</u>  (인)
의 원 <u>박화진</u>  (인)	의 원 <u>서보밀</u>  (인)
의 원 <u>윤휘수</u>  (인)	의 원 <u>심석영</u>  (인)
의 원 <u>박수연</u>  (인)	의 원 <u>배규리</u>  (인)